㈜하랑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전남도민일보

24시 굿모닝 보석 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 촉진 / 뛰어난 발한효과
각종 노폐물 배출!
첨단 중앙로 152번길 31 T.0507-1662-2207

제 2959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5월 5일) 2022년 6월 3일 금요일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에 강기정 후보 당선

“일자리 늘리고 답보상태 현안 해결”
“광주서부터 민주당 혁신 해내겠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강기정 당선인은 “경선과 본선에서 시민 여러분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준비한 대로, 시민 뜻 받들어 빠른 광주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 넘치는 광주, 가치 존중 받는 광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며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답보 상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익사이팅한 광주를 만듦과 동시에 가치를 존중 받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기정 당선인은 “시민들은 광주의 빠른 변화 못지않게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을 바라고 계신다”며 “저조한 투표율로 혁신을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셨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부터, 광주에서부터, 호남에서부터 당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재선에 성공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1일 “이번 선거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며 “다시 한 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다”며 “도민들의 말씀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전남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소외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앞으로 4년 도민과 현장에서 함께 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대도약, 전남 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 후보 당선 “민선 8기 함평군정 이끈다”

이상익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돼 민선 7기 보궐선거 당선에 이어 민선 8기 함평군정을 이끌게 됐다.

이상익 함평군수 당선인은 1일 “압도적 지지와 격려로 함평군수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시 한번 믿고 맡겨 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화합하는 함평, 잘사는 함평을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군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면서 “이는 지난 지난 2년의 군정을 높게 인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소통하며 제 모든 것을 바쳐 오직 군민과 함평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함평군은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금호타이어 공장의 조속한 이전 완료와 함께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조성해 농업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 실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만성적인 농산물 유통 피해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일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들고 “또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군정 방향을 설명했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 햇빛두레 발전소에 순천 창녕리 마을 사업 참여

전남도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공모에 선정된 전국 5개 마을 중 순천 창녕리 마을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에선 경기 3개소, 충북 1개소가 참여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건물, 공용부지 등을 활용해 설비용량 총합 500KW에서 1MW 사이의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다. 마을 주민 30명 이상이 주민조합을 설립해 참여하고, 주민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참여마을에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을 적용한다. 이 계약은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만 적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차액보전 제도다. 또한 총사업비의 90% 한도에서 1.75% 금리 조건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 추천 신청 자격과 공급인증서 우대 가중치 부여 등의 혜택도 있다.

창녕리 마을은 사업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받았다. 1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사건물과 유휴부지에 950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년간 총 20억 원, 연간 1억 원 가량의 안정적 고정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KW 기준 3천56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발전량 1천24M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 온실가스 573t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용운 기자

현충일
6월6일 휴간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량지의 봄

연둔리숲정이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규봉암의 겨울